

## 유예(猶豫)

몸을 웅크리고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영게 흠뻑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 속, 서너 길 높이에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쿼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 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射手)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뺏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 밑에 부서지던 눈 그리고 따발총구를 등뒤에 느끼며 앞장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히 아른거린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홀랑 발가벗겨서 견게 할지도 모른다. (찢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빗갈이 제 빛인 미(美) 전투복이니까-----) 나는 발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가니 얼어서 흰 독길을 걸어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이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 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멋지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발의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안으로 들어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목살되어 묻혀 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쿼퀴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꼭 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는 아무 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북으로 북으로 쏜살같이 진격은 계속되었다. 수차의 전투가 일어났다. 그가 인솔한 수색대는 적의 배후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 자주 본대와와의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다.

초조한 소대원의 얼굴은 무전사에게로만 쏠려 갔다. 후퇴다! 이미 길은 모두 적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적의 어느 면을 뚫고 남하할 것인가? 자주 소전투가 벌어졌다.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될 수 있는 한 적과의 접근을 피하면서 산으로 타고 올라갔다. 기아와 피로. 점점 낙오되고 줄어드는 소대원, 첩첩이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온갖 자연의 악조건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연이어 계속되는 눈보라 속에 무릎까지 덮이는 눈 속을 헤메다 방향을 잃은 그들은 악전고투 끝에 산 밑을 더듬어 내려와서 가까운 그 어

느 마을로 파고 들어갔다. 텅 빈 마을은 집집마다 스산히 흩어진 채 눈 속에 호젓이 파묻혀 있다. 적이 들어온 흔적도 지나간 흔적도 없다. 땀다. 소대원들은 뽀뽀이 헤어져서 먹을 것을 살살이 뒤졌다. 아무 것도 없다. 겨우 얼어빠진 감자 한 자루뿐, 이빨에 서벅서벅 얼음이 마주 치는 감자 알맹이를 씹었다. 모두 기운이 지쳐 쓰러졌다. 일시에 피곤과 허기가 연덩어리처럼 내린다. 발가락마다 얼음이 박혔다.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밤이 다가왔다. 산 속의 밤은 급히 내린다. 선임하사만이 피로를 씹어 가며 문설주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밖은 휘몰아치는 눈보라뿐, 선임하사도 잠시 눈을 붙였다. 마치 기습이라도 있을 듯한 밤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아침이 왔다.

또 눈과 기아와 추위와 싸움이 계속되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자연과의 싸움에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소대장님, 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고 눈 속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는 부하들을 볼 때마다 그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그 싸늘한 마지막 피선을 지켰다. 포켓을 찾아 소지품을 더듬는 그의 손은 항시 죽어 간 부하의 시체보다도 더 차가웠다. 소대장님.....우리러 쳐다보는 마지막 부하의 그 눈빛, 적막을 더듬어 가며 죽음을 재이는 그 눈은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그 무엇이 있었다.

“소대장님……북한 출신입니다. 홀몸입니다. 남한에는……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북 제고향 주소입니다.”

꾸겨진 기습마다 닳아져서 떨어졌다. 그것을 받아들던 그의 손. 부하의 손을 짝 쥐어 주었다. 그 이상 더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인제 남은 것은 그를 포함하여 여섯 명뿐.

눈 속에 쓰러져 넘어진 그들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그들은 다시 눈 속을 헤쳤다, 그의 머릿속에 점점 불안이 다가왔다. 이윽고 XX지점까지 왔을 때다. 산 줄기는 급격히 부드러워져 이윽고 쭉 평지로 빠졌다. 대로(大路)다. 지형(地形)과 적정(敵情)을 탐지하러 내려갔던 선임하사가 급히 달려올라 왔다.

노상에는 무수히 말굽 자리와 마차의 수레바퀴, 그리고 발자국 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선임하사의 손에는 말뚝이 하나 쥐어져 있다. 능히 그것은 손 힘으로 부스러뜨릴 수 있었다. 그들이 지나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밤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어둠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다시 앞에 바라보이는 산줄기를 타고 오를 수밖에 없다. 밤이 왔다.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낮은 지대를 선택하고 대로에 연한 개천 독을 이용하였다.

무난히 대로를 횡단하였다. 눈두렁에 내려서자 재빠르게 엄폐물을 이용해 가며 걸음을 다그쳤다. 인제 앞산 밑까지는 불과 이백 미터밖에 안 된다. 그들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고 걸음을 다그쳤다. 그때다. 돌연 일발의 총성과 더불어 한마디 비명을 남기고 누가 쓰러졌다. 모두 콧 눈 속에 엎드렸다.

일순간이 지났다. 도대체 총알은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인가? 그 방향은 잡을 수가 없다. 그가 적정을 살피려 고개를 드는 순간 또 총알이 날아왔다. 측면에서부터다. 모두 응전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대로 쪽으로 각도를 돌렸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놈들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적 쪽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대로 언제껏 있을 수도 없다.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눈 위다. 그들은 산기슭까지 필사적으로 포복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총알은 비오듯 집중된다.

비명과 더불어 소대장님 하고 외치는 소리, 그는 눈을 짝 감았다. 땀이 비오듯 흐른다.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포복을 계속하였다. 의식이 자꾸 흐린다. 산기슭 흰 눈 속에 덮인 관목 숲이 눈앞에서 뿌연히 흩어진다. 총성은 약간 잦아졌다. 산기슭으로 타고 오르는 순간 선임하사가 쓰러졌다. 그는 선임하사를 부축하고 끌며 산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산 속 깊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누웠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와서였다.

몹시 춥다. 몸을 약간 꿈틀거리려 본다. 전 근육이 추위에 마비되어 감각을 잃은 것만 같다. 인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귀퉁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렴풋이 눈 속에 부서지는 구둑발 소리가 들려온다. 점점 가까워진다. 시간이 된 모양이다. 몸을 일으키려고 움직거리려 본다. 잠시 몽롱한 시각이 흐른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몹시 춥다. 왜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 몽롱하게 정신이 흩어진다.

전공 과목은? 왜 동무는 법과를 선택했었소? 어렸을 때부터 벌써 동무는 출신 계급적인 인습 관념에 젖어 있었소, 그것을 버리시오.

나는 동무와 같은 인물을 아끼고 싶소. 나는 동무를 어느 때라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소. 문지방으로 스며 오는 가는 실바람에 스칠 때마다 화롯불이 붉게 번지어 갔다.

나는 동무를 훌륭한 청년으로 보고 있소. 자, 담배를 태우시오.

꾸부러진 부젓가락으로 재 위를 헤칠 때마다, 더욱 붉게 불꽃이 번진다.

그렇다면 동무처럼 불쌍한 청년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요. 나는 심히 유감스럽소. 동무의 그 태도가 참으로 유감ियो.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왜 동무는 그렇게 내 얼굴을 차갑게 쳐다보고만 있소. 한마디 대답도 없이 입을 다문 채……알겠소. 나는 동무가 지키고 있는 그 침묵으로 동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소. 유감ियो.

주고 받던 대화, 조그만 방안, 깨어진 질화로가 어렴풋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는 무겁게 몸을 뒤틀었다. 희미하게 또 과거가 이어 온다.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와서였다. 산 속의 새벽은 아름답다. 눈 속에 덮인 산 속의 새벽은 더욱 그렇다. 나뭇가지마다 소복이 쌓인 눈이 햇빛에 반짝인다. 해가 적이 높아졌을 때,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선임하사는 피에 붉게 젖은 한쪽 다리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선임하사는 피에 붉게 젖은 한쪽 다리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선임하사는 피에 붉게 젖은 한쪽 다리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조용히 눈을 뜬다. 그리고 소대장을 보자 쓸쓸히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선임하사를 짚고 안고 뺨을 비비대었다. 단둘뿐! 인제는 단 둘이 남았을 뿐이었다.

“소대장님, 인제는 제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그는 조용히 선임하사의 얼굴을 지켰다. 슬픈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오랜 군대 생활에 이겨 온 굳은 의지가 엿보일 뿐이었다.

선임하사, 그는 이차대전시 일본군에 소집되어 남양전투에 종군하다 북지(北支)로 이동, 일본 항복과 더불어 포로생활 이 개월을 거쳐 팔로군(八路軍), 국부군, 시조(時潮)가 변전(變轉)되는 대로 이역(異域)을 표류하다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군문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군대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는, 그 전투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제일 신이 나는 순간이라는 그였다.

“사람은 서로 죽이게끔 마련이요. 역사란 인간이 인간을 학살해 온 기록이니깐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오? 난 전투가 제일 재미있소. 전투가 일어나면 호흡이 벅차고 내가 겨누 총구에 적의 심장이 아른거릴 때마다 나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 순간 역사가 조각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사람이란 별 게 아니라 곧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싸우다 쓰러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껏 살아온 태도였다. 이것뿐이다. 인제 그는 총에 맞았다. 자기 차례가 된 것을

알뿐이다. 어렴풋이 희미한 기억을 타고 선임하사의 음성이 떠오른다. 그는 몸을 조금 일으키려고 꿈지럭거리다가 그대로 털썩 쓰러졌다. 바른편 팔 위에 경련이 일어난다. 헛바닥을 꼭 깨물고 고통의 일순을 넘겼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선임하사의 생각이 이어 온다.

“소대장님, 제 위치는 결정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분명히 말을 끝낸 선임하사는 햇볕이 조용히 깃드는 양지쪽으로 기어가서 높은 떡갈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햇볕을 받아가며 조용히 내려감은 눈, 비애도, 슬픔도, 고독도, 그 어느 하나도 없다. 다만 눈 속에 덮인 산 속의 적막, 이것이 그의 얼굴 위에 내릴 뿐이다. 의식을 잃은 듯 몸이 점점 비스듬히 허물어지다가 털썩 쓰러졌다. 그는 급히 가가서 선임하사를 일으키려 하였다. 그 간 눈을 가늘게 떴다. 입가에 미소가 가벼이 흐른다. 햇볕이 따스이 그 입가의 미소를 지킨다.

“이대로……”

눈을 감았다. 잠시 가는 숨결이 중단되며 이어 갔다.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 속을 헤치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었다. 몇 번이고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때로는 눈보라와 종일 싸워야 했고 알 길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헤매어야 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다. 불안, 절망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잡은 이 방향이 정확한 것인가? 나의 지금 이 위치는? 상의할 아무도 없다. 나 하나뿐. 그렇다고 이대로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눈 속을 헤치며 걸었다. 어디까지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껏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밤이면 눈 속에 묻혀서 잤다. 해가 뜨면 또 걸어야 한다. 계곡 비탈 눈에 쌓인 관목 숲, 깎아 세운 듯 강파르게 솟은 산마루, 그는 몇 번이고 굴러 떨어졌다. 무릎이 깨어지고 옷이 찢어졌다. 피로와 기아, 밤이면 추위와 더불어 고독이 엄습한다. 악몽, 다시 뒤덮이는 악몽, 신음 끝에 눈을 뜨면 적막과 어둠뿐. 자주 흠어지는 의식은 적막 속에 영원히 파묻혀만 간다. 나는 이대로 영원히 눈 속에 묻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밤은 지새고 또 새벽은 온다. 그는 일어났다. 눈 속을 또 헤쳐야 한다. 산세는 더욱 험악하여만 가고 비탈은 더욱 모질다. 그는 서너 길이나 되는 비탈길에서 감각을 잃은 발길의 헛갈림으로 굴러 떨어졌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본 정신이 돌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어떤 강한 충격으로 입술을 확 깨물었다. 전신이 쿡쿡 쑤신다

그는 기다시피 하여 일어섰다. 부르짖 주먹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 세 길…… 네 길……까마득하다. 그러나 올라가야만 한다. 그는 입을 악물고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전신에서 땀이 비오듯 흐른다. 정신이 자꾸 흐린다 하늘이 빙그르르 돈다. 그는 눈을 확 감고 나무뿌리를 움켜쥔 채 잠시 정신을 가다듬는다. 또 기어오른다. 나무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눈덩어리와 흙덩어리가 부서져 내린다. 악전 끝에 그는 비탈에 도달하였다. 도달하던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밤이 온다. 또 새벽이 온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눈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총을 돌려 뿔 기운도 없어 허리에다 붙들어 매었다. 그는 다자꾸 흠어지는 의식을 가다듬어가며 쌀을 옮겼다.

한 주일 째 되던 저녁, 어슴푸레하게 저녁이 깃들 무렵 그는 이 험한 준령을 정복하고야 말았다.

다음날, 해가 어언간 높아졌을 무렵에 그는 눈을 떴다. 그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눈앞에 C자형으로 산줄기가 돌아 나간 그 옴폭 파인 복판에 집들이 점점이 산재하여 있

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모르고 눈 속에서 밤을 보냈다니……소복이 집들이 둘러 앉은 마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집 문들이 제멋대로 열어 젖혀진 채 황량하다. 눈이 마을 하나 가득히 쌓인 채 발자국 하나 없다. 돼지우리 소 헛간. 아……사람들이 사는 곳! 그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열어 젖힌 장롱…… 방바닥 하나 가득히 먼지 속에 흩어진 물건들……옷! 찢어진 낡은 옷들! 그는 그 옷들을 주워서 꼭 움켜쥐었다. 아, 사람의 냄새! 때묻은 사람의 냄새! 방안을 둘러본다. 너무도 황량하다. 사람 사는 곳이 이렇게 황량해질 수는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아무리 몇 번이고 보아 온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는 이상한 발소리를 듣고 한쪽 벽으로 몸을 피했다. 흙이 부서진 벽 구멍으로 밖의 동정을 살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스산한 내 정신의 탓인가?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확실히 사람들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서린다. 그는 담 구멍을 통하여 사방을 유심히 살폈다, 약 오십 미터쯤 떨어진 맞은편 초가집 뒤 언덕길을 타고 한 때가 물려가고 있다. 그들은 얼다 안 가 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보기에다 확실히 군인임엔 틀림없다. 미군 전투복장도 끼어 있던 듯하다, 벌써 아군 선내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는 숨 죽여 이 광경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좀 수상쩍은 데가 있다. 누비옷을 입은 군인의 그 누비옷의 형식이 문제다. 그는 좀더 자세히 이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맞은편 초가집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담벽을 따라 교묘히 소 헛간과 짚 난가리 등, 엄폐물을 이용하여 그 집 뒷마당까지 갈 수 있었다. 뒷 담장에 몸을 숨기고 무너진 담 구멍으로 그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다. 눈앞의 그림자처럼 아른거린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 온다.

동무……, 총살, 이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못 박혔다.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더욱 눈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 일동을 살폈다. 머리가 텅수룩하고 야윈 얼굴에 내의 바람의 한 청년이 양손을 등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소?”

그 위엄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생명체의 도구와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나는 기쁘요. 내가 한 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 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 기쁠 뿐입니다. ”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좋소. ”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에 어렸다.

“이 독길을 따라 곧 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것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재었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 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가고 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곧바로 정면에 눈준 채 조금도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순간 그는 총을 꼭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

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썩어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선 줄줄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른다. 그는 폭 고개를 묻고 쓰러졌다. 위기일발, 다시 겨눈다. 또 어깨 위를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자꾸 흠여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똑 그쳤다. 적은 전후 좌우방으로 흠여져서 육박하여 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폭 쓰러졌다. 의식이 깜박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성의 여음이 귓가에서 감돈다. 몸 어느 구석이 쿡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쿵 하고 내려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바른편 팔 위에 격통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들어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피, 검붉은 피가 함뿍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담배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얗니 늘어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 간다. 방안이다, 방안에 뉘어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 온다. 점점 멀어져 가는 발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 후 몇 번이고 심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밀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뻘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떤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와 오는……정확한……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밝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 하고 있어 !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재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지고 끌어 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고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꼭 움켜 짚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 졌다.

눈에 함뿍 싸인 흰 독길이다. 오오 이 독길……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 달은 길ियो. 것처럼 가고 싶어하는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 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소리가 어렴풋이 들려 온다. 두런두런 이야기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서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뒷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흰 눈이 회색 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지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부로 돌아들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든 지나가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